

‘수단 교민 이송’ 군 수송기, 현지 도착...대피준비 개시

707특임대·공군CCT·청해부대 등 현지 교민 29명 모두 안전한 상태 정부, 주수단한국대사관 철수 검토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민을 안전지대로 이송하기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가 22일 오후 현지에 도착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현지 도착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조종사·정비사·경호요원·의무요원 등 50여 명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수송기에 탑승시켜 최종 목적지인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

한국민이 거주하는 수도 하르툼 공항이 폐쇄된 상황에서 수송기는 일단 지부티 미군기지에 대기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철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해외파병부대인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상황을 가능하기 어려운 만큼 만에 하나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찮을 경우 우리 국민을 항공로 이송, 밧길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다.

이도문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임종특수국가보안실 2차장 조재로 열린 관계기관 상황평가회의의 관련 보고를 받고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단 군부대는 ‘이드 알피르(라미단 종로)를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을 맞아 21일 저녁(현지 시간)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난 21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공정통제사 요원들이 서로 필요한 물자를 점검해주며 수단 교민철수 해외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포함한 각국 정부는 현지에서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아직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력 충돌 발발 초반보다는 상황이 다소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단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총 29명이며 모두 안전한 상태다. 이들은 여러 곳에 모여 머물며 대피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현지 우리 공관과 소통 중이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주에티오피아대사관 등 인근 공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선발대는 전날 현지에 도착했고 서울에서 출발한 본대 4명은 이날 오후 도착해 활동을 개시했다.

신속대응팀은 지부티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부티에 있는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수송기로 도착한 우리 군 병력과 함께 수단 현지 대사관 및 교민 안전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단 교민 대피와 함께 상황에 따라 주수단한국대사관 철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력 분쟁으로 인명피해가 커지자 각국은 자국민 철수에 나섰다. 사우디가 가장 먼저 선박으로 자국민을 대피시켰으며, 미국은 이날 군용기 6대를 투입해 자국민 70여 명을 철수하고 수단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위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해 주수단 미국 대사관 철수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풍광·역사·맛의 고향 ‘남도’로 촬영 오세요

전남도, 영상 소재 관광 활성화...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홍보여행

전남도가 최근 아름다운 풍광, 역사적인 장소, 맛의 고향이라는 문화콘텐츠 홍보로 현지 촬영(로케이션)을 유도하는 영상산업 관계자 ‘남도 홍보여행’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1억명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서른, 아홉’의 연출을 맡은 김상호 감독, 넷플릭스 영화 ‘모럴센스’의 박현진 감독, 웹드라마 ‘신입사원’, ‘테이스츠 오브 호러’의 이윤진 프로듀서, 방송 프로그램 ‘출발비디오여행’, ‘접속 무비월드’의 천준아 방송작가 등 20여 명의 감독, 프로듀서, 작가가 참여했다.

나주에서는 영상포 흥어의 거리, 나주향교와 나주목 관아를 둘러보며 나주 천년의 역사를 돌아봤다. 여행 첫 날 밤 나주 복합문화공간이자 고택 한옥스테이인 39-17마중에서 각자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전남의 영상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39-17마중은 영화 ‘경계인’, 드라마 ‘알고있지만’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해남에선 대흥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관인 유선관을 둘러봤다. 대흥사는 국도 최남단에 있는 두륜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대한불교조계종 22교구본사이며 차 문화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선관은 1914년 사찰을 찾는 방문객과 수

도승을 위해 지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나, 2021년 6월 세단장에 한옥 호텔로 이용되고 있다. 영화인들은 꼭 가고 싶어 하는 명소로 대흥사와 두륜산 물줄기가 만든 계곡을 모두 품은 수려한 경관이 일품이다. 유선관엔 선인관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서편제’, ‘천년학’ 등의 영화를 촬영했다.

진도에서는 명랑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명랑해전 현장인 울돌목을 샅샅이 훑었다. 울돌목은 ‘물이 우는 관문’이다. 이곳에서는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조선 후기의 남종화가인 소치 허련이 말년에 거처하며 작품 활동을 한 윤림산방도 방문했다. 윤림산방은 침철산 주변의 수많은 침철산 봉우리에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른 안개의 모습이 마치 구름과 숲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상호 감독은 “전남에 방문할 기회가 많았는데, 홍보여행을 통해 잘 몰랐던 공간이 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다음 작품 소재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겼다”며 “영화, 드라마, 출판, 문화기획 등 네트워크 형성이 좋은 기회였고, 개인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이해 부탁”

입장문 발표...“인건비 감축·조직 혁신 등 대책 강구할 것”

한국전력이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호소했다.

한전은 지난 21일 ‘최근 현안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애방 대책을 포함한 철저한 자정 조치를 빠른 시일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한 사장 명의의 입장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전력 구입가격이 전력판매가격보다 높은 적자구조 등으로 인해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분기 전기

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이례적으로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한전은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의 태양광사업 영위, 한국에너지공단 업무진단 결과 등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자정 조치를 빠른 시일 내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전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 판매 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또 한전재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의 열쇠를 쥔 정부·여당은 지난 20일 전기·가스요금에 관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

한전이 고강도 자구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호소함에 따라 향후 당정 논의에서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정승일 사장

20·30대 61% “통일 꼭 필요한 것 아냐”

北보다 中이 더 비호감...82% “한국 사회 갈등 심각”

20·30대 과반은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바른연론시민행동이 23일 발표한 20·30대 남녀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24%였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0·30대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교 상대국 가운데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각각 물었더니 중국에 대해서는 91%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9%만 호감을 표명했다.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88%, 호감도는 12%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67%가 호감을, 33%는 비호감을 드러냈다. 일본의 경우 호감 37%, 비호감 63%였다.

응답자의 83%는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중국을 위협으로 꼽은 이들은 77%였다. 미국은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답변은 74%로 다수를 점했다. 일본의 경우 안보 위협이라는 응답이 53%였고,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은 37%였다.

응답자의 82%는 한국의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3%, 여야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4%, 빈부 차이에 따른 계층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4%로 높았고 영호남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1%였다.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42%가 부정적으로, 34%가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파업에 대해서는 43%가 부정적 입장을, 3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7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광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고

- 발전사업 개요
 - 사업명칭 : 광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2
 - 사업면적 : 약 9,900㎡
 - 사업시행 : 광산그린에너지(주)
- 발전사업 주요 내용
 - 발전설비 용량 : 26.4MW(연료전지)
 - 사업개시 예정 : 2025년 6월 예정
 - 사업운영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진수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3년 4월 24일 ~ 2023년 4월 30일 (7일간)
 - 방법 : 이메일 (with4511@daum.net) 또는 FAX (031-348-7004) 전송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3월 2일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2023년 5월 2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유한회사 성진
해남군 계곡면 당산길 29-6
청산인 임용승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3월 2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 하였으며,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주식회사 영진주력
광주광역시 북구 죽림마을길 9 (동림동)
청산인 김진숙

주식액면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3년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2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주식회사 다일택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55 (연제동)
대표이사 정병욱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3월 2일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2023년 5월 2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유한회사 승리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0, 205동 201호(연제동, 한국아일랜드)
청산인 이서훈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4월 3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24일
농업회사법인 천경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767-4
청산인 유시훈

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운 266-1960
 • 동광 525-3761 • 신안 222-6171
 • 양산 571-7658 • 오산 266-78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문 222-9054
 • 동부 225-6001 • 중흥 222-9054
 • 중정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동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천 376-7153
 • 치평 376-6511 • 문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문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닝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